



# 닦아야 드러나는 마음, 청렴 비누

오서빈

## 기획 의도

청렴한 마음은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닦아내야 드러나는 가치입니다. 이 비누는 그런 청렴의 본질을 담은 일상 속 오브제입니다. 비누의 겉모습은 불완전하지만, 사용할수록 점차 안에 감춰진 ‘청렴한 마음’의 모양이 드러나는 구조를 통해 내면을 가꾸는 과정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. 정직, 배려, 공정,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은 어려운 이 세가지 가치들이 손끝에서 거품과 함께 드러날 때, 작은 울림과 다짐을 선물합니다.

## 상품 특징

‘닦아야 드러나는 마음’ 비누는 모두 3종의 겹구조로 만들어 졌습니다.

### ① 겉비누 – 부정적 감정의 형상

각각 거짓, 이기심, 불공정을 상징하는 조형으로 디자인된 비누의 외피는 마치 청렴하지 못한 마음을 형상화한 듯한 거친 질감을 가졌습니다.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닳고, 사라집니다.

### ② 속비누 – 청렴한 마음의 형상

비누를 사용할수록 안쪽에서 맑고 단단한 조형이 드러납니다. 각각 정직(Honesty), 배려(Consideration), 공정(Fairness)을 상징하는 투명한 구형, 오목한 그릇형, 균형 잡힌 저울 조형이 나타나며, 그 변화는 사용자에게 청렴의 본질을 되새기게 합니다.

### ③ 청렴 팬던트 – 손에 남는 다짐

속비누 안에는 작은 금속 팬던트가 하나씩 숨겨져 있습니다. 비누를 모두 사용하고 나면 이 팬던트가 손에 남으며, 사용자는 이 팬던트를 팔찌나 키링으로 만들어 평소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. 청렴이라는 가치를 몸에 지니고 다니며, 늘 자신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